

건축을 매개로 한 상상의 문화적 기억공간

- 탈식민시대 대한민국의 일제 식민지 근대 건축문화 유산 -

이홍렬*
militia505@hotmail.com

<目次>

- | | |
|---------------------------|--------------------------|
| 1. 서론 | 3. 기억의 사회적 맥락: 근대건축문화유산과 |
| 2. 근대적 스펙터클의 등장 : 세기말과 세기 | 집단적 기억/정체성 형성 |
| 전환기 근대와의 조우 | 4. 결론 |
| 2.1 식민지 조선의 근대건축 양식 | |
| 2.2 식민지배의 기반 구축을 위한 건축 : | |
| 건축적 표준·동질화 | |

주제어: 근대건축문화유산(modern architectural / built cultural heritage), (탈)식민도시((post)colonial metropolis), 식민지 조선(colonial Korea), 근대화(modernization), 서구·유럽화(Westernization / Europeanization), 상상의 공동체·심상지리(imagined communities / imagined geographies), 근대성/탈식민성(Modern/Postcoloniality), 집단·사회적 기억(collective / social memory), 건축적 표준·동질화(standardization / homogenization).

1. 서론

본고는 현대 도시경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대건축물과 같은 근대문화공간/유산을 통해 오늘날 한국 대중들이 개인적·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연상시키는 수단이자 대상 그 자체로서 근대문화유산들, 특히 과거 일제 식민 통치와 연계된 역사적 정체성으로 인해 다각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근대건축문화유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통해 과거 및 이후 세대와의 의미 있는 문화적 접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메이지 시대 일본과 개화기 및 식민지 조선의 근대 공간 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양식 근대건축양식과 이후 파생된 다양한 건축적 변화·혼종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전통적인 공간 및 일상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당시 근대 건축 기술에 내재된 근대적 표준성·획일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독일(헤르만 엔데(1829-1907)

*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강사

와 빌헬름 베크만(1832-1902)) 혹은 영국(조시아 콘더(1852-1920)) 출신 건축가들 중심의 역사주의/신(新)고전주의¹⁾ 건축양식이 19세기 중엽 메이지 시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영향을 받은 다쓰노 긴고(1854-1919), 가타야마 도쿠마(1854-1917)와 같은 유명 일본인 건축가들과 식민지 관공서의 관련 건축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이러한 유럽의 근대 건축양식을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복합적 건축양식의 근대건축물 또한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도시 경관 전반에 등장하기 시작한다.²⁾ 이는 당시 비서구국가들에서 나타난 서구식 식민지 건축 양식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는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본고는 사례연구로서 대한제국 말기 탁지부(度支部)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건축소(建築所) 소속 일본 건축가/건축 엔지니어들이 제작했던 공통건축도면들을 통해 당시 식민지 조선의 건축에서 나타난 서양화/유럽화와 이를 모방하려는 경향과 제국주의 일본이 그들의 식민지 사회에 이식시키고자 했던 건축을 매개로 한 상상의 (식민지) 공동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및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개인이 소장중인 일제 강점기 전후로 제작되었던 공통건축도면 및 관련 사진/그림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서양으로 부터 들어온 새로운 표준화된 건축 디자인 기술들이 건축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도시)전경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할프박스와 아스만의 “사회적 기억” 및 “문화적 기억”에 대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세대에 걸쳐 우리의 시대상 혹은 개인적·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구체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건축문화유산의 “일상적 존재(보존)” 혹은 “인위적 부재(철거)”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³⁾ 이를 위해 현재까지

1)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유행하기 시작했던 근대건축 양식 중 하나인 역사주의는 이전의 역사적 양식 또는 모티브를 당시의 건축이나 생산품에 응용한 양식이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차용하거나 모방했기 때문에 복고주의(revivalism) 라고도 부르며, 서로 다른 시기와 양식을 당신의 관심에 따라 마구 혼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절충주의(eclecticism) 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는 서구의 고대 문화인 그리스와 로마의 양식, 그리고 중세의 고딕, 바로크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동방 이슬람의 양식조차 거침없이 차용되었기 때문에 역사주의적 양식 중에는 네오고딕(Neo-Gothic), 네오바로크(Neo-Baroque), 네오르네상스(Neo-Renaissance), 네오레반트(Neo-Levant) 등 다양한 복고주의 건축 양식 명칭들이 혼용되었으며, 당대 건축 양식에 있어 국제적인 유행을 주도 했었다. 최범(2018)『최범의 서양 디자인사』파주: 안그라픽스, p.42 참조.

2) William H. Coaldrake, “Building the Meiji State: The Western Architectural Hierarchy,” in *Architecture and Authority in Jap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p.209-250

3) 윤미애에 따르면 문화적 기억의 연구가 기존의 철학적, 심리학적, 문예학적 접근과는 다르게 기억을 개인심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할프박스의 이론에서 출발한다. 할프박스가 자신의 기억이론을 전개시켰던 192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철학이나 심리학, 문학에서 다루어 졌던 문제였다. 할프박스에 의해 기억의 문제는 처음으로 사회학적 차원으로 옮겨짐으로써 기억의 사회적 틀이 논의대상이 되고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었다. 할프박스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고독한 개인에게는 기억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억은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아 있거나 이미 사라져 버린 식민지 근대건축양식의 건물들이 왜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는지 아님 그렇지 못했는지를 1995년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졌던 경상남도청이 이후 부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으로 복원되면서 지금까지 보존되는 것과 연계시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근대적 스펙터클의 등장 : 세기말과 세기 전환기 근대와의 조우



<사진 1> 뤼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에서 한 열차가 프랑스 라 시오타 역에 막 도착하는 첫 도입 부분.
출처: L'Arrivée d'un train à La Ciotat (Louis Lumière, 1896), <https://www.youtube.com/watch?v=MT-70ni4Ddo>
(2019년 9월 27일 접속 및 영상 캡처)

1895년 12월 28일 늦은 오후 프랑스 파리의 카푸시네 대로에 위치한 르 그랑 카페. 이 카페 지하의 인디언 살롱에서 뤼미에르 형제가 만든 세계 최초의 상업영화인 “열차의 도착 (L'Arrivée d'un train en gare de La Ciotat)”이 이제 곧 상영될 예정이다. 이른 저녁 아페리티프로

서 기억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의사소통의 내용이 되고 집단적 기억의 테두리 안에 자리잡을 수 있는 것만이 내용을 이룬다. 할프박스는 이처럼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억을 사회적 기억, 혹은 집단적 기억이라고 부르고 있다. 윤미애(2002)「매체와 문화적 기억」『독일어문화권연구』Vol.11, pp.40-41

와인 한잔을 가볍게 마신 조금은 설렌 기분인 서른 명 남짓의 프랑스 문화계 인사들이 입장료 1프랑을 지불하고 어두침침한 상영관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영화’라 불리는 신기술이 보여 주게 될 새로운 그 무언가를 곧 보게 될 거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올라 있다. 하지만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 영사기로 스크린에 비춰진 역동적인 무성(無聲)의 흑백 이미지 하나가 그들 쪽으로 흑하고 맹렬히 달려오는 순간 상영관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만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상영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관객들도 몇몇 보인다.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역동적인 이미지는 바로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라 시오타 기차역 플랫폼에 지금 막 도착하는 증기 기관차를 촬영한 영상이다(사진 1 참조).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적 산업화를 일찍이 경험한 유럽인들에게 조차 당시 그들의 일상에서 조금은 익숙했을 법 할 엄청난 소리와 연기를 뿜으며 도착과 출발을 반복하는 기차와 익명의 군중/승객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특별한’ 일상이 발생하는 근대 건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기차역의 모습을 영화라는 당시의 ‘뉴미디어’가 만들어낸 입체적인 이미지로 생애 처음으로 접한 그 순간이 꽤나 충격적이었나 보다. 당시 말과 마차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교통수단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엄청난 속도로 매끈한 일직선의 선로를 따라 맹렬히 달려오는 증기 기관차의 매개된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실제보다도 더 실감나게 다가왔을런지도 모른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으로 탄생된 다양한 신(新)문명들에 익숙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조차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일상에서 피로감을 느끼는데, 당시 19세기 말의 급변하는 세상을 접한 근대인들에게 있어 엄청난 속도로 맹렬히 달려오는 기차의 등장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⁴⁾ 이처럼 근대는 당시 기차와 건축이라는 최첨단의 근대적 기계매체 및 과학기술을 앞세워 무서운 속도로 우리들의 일상을 침투하기 시작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일상 공간과 생활방식을 매우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다.⁵⁾

4) 1895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세기 말의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뤼미에르 형제의 세계 최초 상업영화 상영과 이를 통해 경험했던 근대적 기계매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놀라움과 공포를 둘러싼 일종의 ‘도시전설’을 저자 나름대로 각색·묘사해 보았다. 사실 <열차의 도착>은 엄밀히 말해 세계 최초의 상업영화가 아니며, 또한 당시 그날 그곳에서 이 영화의 상영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선 관련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1895년 12월 28일 파리에서 뤼미에르 형제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10개의 단편 영화들 중에는 <열차의 도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해인 1896년 1월 이 영화가 촬영된 라 시오타를 포함한 프랑스 주요 도시들에서 상영되었다. Martin Loiperdinger, “Lumiere’s Arrival of the Train: Cinema’s Founding Myth,” *The Moving Image* 4(1), 2004, pp.89-118 참조; Eric Grundhauser, “Did a Silent Film About a Train Really Cause Audiences to Stampede?: A closer look at an enduring tale of movie-induced panic,” *Atlas Obscura*, November 3, 2016, <https://www.atlasobscura.com/articles/did-a-silent-film-about-a-train-really-cause-audiences-to-stampede> (2020. 9. 27 접속) 참조.

5) 이런 의미에서 근대의 표정은 매끄럽다 할 수 있다. 이 매끈한 평면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근대가 자리하는 공간의 모습이며 굴곡진 전통적인 공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굴곡진 공간은 차이를 가지는

이처럼 식민지 조선의 도시 풍경에 증기 기관차가 폭주하듯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 혹은 이를 모방한 의양풍(擬洋風)의 건물 및 관련 시설들은 식민지 근대를 가장 직접적·축약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동시에 당시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함축하는 상징적인 ‘아이코닉 건축’⁶⁾들이라 말할 수 있다. 소수원과 심은주는 피어스의 기호학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코닉 건축을 대할 때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세가지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피어스의 기호학에서 아이콘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대신하는 도상으로서의 아이콘이다. [...] 두번째는 원래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가까운 성분을 가지고 있어 예측할 수 있는 인덱스(지표)로서의 아이콘이다. [...] 마지막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수용자의 문화와 해석에 따라 해석되는 심벌(상징)로서의 아이콘이다. [예를 들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대 피라미드는 높이가 147미터에 달하는 기하학적 형태의 건축으로 그 자체가 아이콘이며, 이집트라는 지역과 피라미드를 대표하는 인덱스이며, 한 시대의 종교와 권력의 심벌이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상징적인 근대적 경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경성역은 단순히 기차 역사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1925년 10월 25일에 준공된 경성역은 1912년 조선은행과 1914년 동경역을 설계한 스타 건축가 다쓰노 긴고의 동경 제국대학 교수 시절 제자였던 츠카모토 야스시(1869-1937)의 설계를 바탕으로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설립했다. 츠카모토 야스시는 전면 중앙에 비잔틴 양식의 돔을 얹고 그 바로 아래 벽면에는 아치형 창을 내어 역 중앙홀 안으로 자연채광이 들도록 설계했으며, 전체적으로는 네오르네상스 양식 풍인 경성역은 당시 일본의 동경역 다음으로 큰 규모와 외양을 자랑했다.⁸⁾ 경성역은 기차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사불란함 속에서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고독, 익명성을 통한 인식의 자유로움 등 불특정 다수의 익명의 사람들과의

공간이며, 그 차이를 통해 일상의 다양한 기억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반면, 근대의 매끈함이란 이렇게 굴곡지고 다채로운 전근대적인 삶의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기능적이고 획일적·합리적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신과 이미지를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창섭(2011)「근대의 전령, 기차」, 오창섭 외 5인(2011)『한국의 근대건축』파주: 북노마드, p.15 참조

6) 양지윤·김주연(2019)『아이코닉 건축』북저널리즘 참조

7) 양지윤·김주연(2019), 전게서, pp.17-18; 소수원·심은주(2006)「피어스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건축 공간의 아이코닉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한국실내디자인학회』제8권 2호, pp.129-134 참조; 조희영·김정곤(2007)「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한 현대 건축물의 아이콘화 여건 분석」『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27권 1호, pp.343-346 참조

8) 오창섭(2011), 전게서, p.10

관계들이 비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서 환송과 이별의 슬픔과 만남의 기쁨, 떠남의 설렘이 교차’⁹⁾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대적 체험 공간이었던 것이다. 기차를 타고 각 지방에서 경성으로 상경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한번도 접해본 적 없는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경성역의 외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식민지 근대도시인 경성에 도달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서구식 절충형 역사주의 건축양식의 외양을 취했던 경성역은 당시 근대를 가장 함축하는 공간이자 건축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가능했던 이유는 근대가 곧 서구이고, 서구가 곧 근대였던 우리 근대 체험의 고유성 때문이었다. 서구적인 것이 곧 근대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던 식민지 조선에서 낯선 서양의 건축양식으로 탄생된 경성역은 경험적 차원에서 근대의 표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면에 자리한 시계, 기차, 거대한 홀과 기둥들, 이국적인 외관, 그리고 그 속을 채운 대중들의 비일상적인 움직임 등 경성역을 구성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역을 빠져나와 경험하게 될 경성이라는 식민지 근대도시의 체험들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곧 개봉될 영화에 대한 짧은 트레일러 영상과도 같은 근대적 장치들이었다.¹⁰⁾ 다시 말해, 개화기를 거쳐 등장한 일제강점기 근대화의 불가역적인 조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던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 그리고 근대화의 산물인 증기기관차와 일본의 동북아시아 내륙 식민지 기차 네트워크가 모이는 경성역은 서양 및 일본의 식민지 근대 건축의 근대성과 식민성을 체현하고 있는 근대적 스펙터클, 즉 전통과 근대가 조우하는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침예하게 대립하는 이질적인 경계지역·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양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모더니즘에 매료된 메이지 시대 일본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식민지 조선의 “근대적 경합”과 이러한 근대(성)에 내제된 모순 – 즉, 표면적으로는 파괴적(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상호보완적(과거로의 회귀 혹은 과거와의 끊임없이 소통)일 수 밖에 없는 근대의 두 얼굴 – 을 근대건축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발생된 근대 전환기 조선 사회내 변화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1 식민지 조선의 근대건축 양식

‘[옛것과 결별하고 새것을 진보로 설정하는] 근대성의 신화 가운데 하나는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이라는 생각이다. 그 단절은 세계를 백지[상태]로, 과거와 상관없거나 과거가 끼어들더라도 그것을 망각하고 새로운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백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수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대성은

9) 박천홍(2003)『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 철도로 돌아본 근대의 풍경』서울: 산치럼, p.245 참조

10) 오창섭(2011), 전게서, pp.10-11 참조

온건하고 민주적인 것이든 혁명적이고 권위적이며 상처를 남기는 것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항상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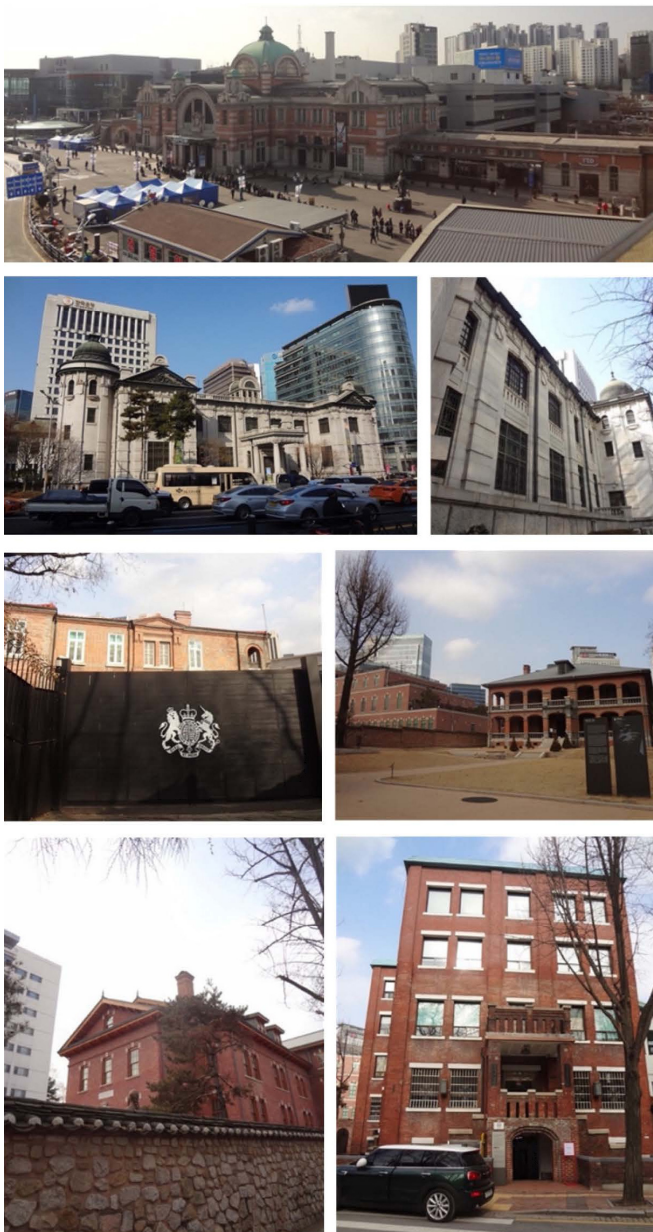
‘전통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얻어지는 법칙과 관례, 개혁의 총합이며, 세대와 세대로 계승되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전통 속에도 소멸하는 법칙들이 있고, 새롭게 생성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전통은 연속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전통의 지나간 시간이 되풀이하는 것은 전통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 스쳐 가는 경험들의 누적된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¹²⁾

20세기 초 르 코르뷔지에, 루드비히 힐테자이며, 미스 판 데어 로에 등과 같은 서구의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미래의 주거 생활 및 미래 도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장밋빛 청사진들을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의 건축 기술은 그들의 건축적·도시적 이상을 완벽히 실현시키는데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동(북)아시아 유수의 대도시들, 특히 대한민국의 도시들에서 그들의 미완성 근대 프로젝트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미스 판 데어 로에의 1921년 “베를린 프리드리히 거리 마천루 프로젝트”¹³⁾ 초안에서 제시했던 수직의 신(新)주거 모델 뿐만 아니라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모던 디자인 선구자들의 미래형 도시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들이 현재 부산의 해운대, 인천의 송도, 서울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및 빌딩 숲 등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활발히 실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펙터클한 최첨단 도시 배경들 사이로 다양한 형태의 옛 흔적들이 문화적 유산 혹은 도시 폐허의 형태로 지금까지 남아 공존해 나가고 있다.

11) 데이비드 하비, 김병화 옮김(2005)『모더니티의 수도, 파리』생각의 나무, p.7; David Harvey, *Paris: Capital of Modern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p.1 참조; Tristan R. Grunow, “Ginza Bricktown and the Myth of Meiji Modernization”, Tristan R. Grunow and Naoko Kato eds., *Digital Meiji: Revisualizing Japanese History at 150*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ibrary, 2019), <https://pressbooks.bccampus.ca/meiji150/chapter/ginza-bricktown-and-the-myth-of-meiji-modernization/> (2019. 10. 3 접속) 참조.

12) 브루노 무나리, 양영완 옮김(2001)『예술가와 디자이너』디자인 하우스, p.53, p.57

13) Ludwig Mies van der Rohe, “Friedrichstrasse Skyscraper Project, Berlin-Mitte Germany (Exterior perspective from the north)”, *MoMA*, 2020,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787> (2020. 9. 20 접속).



<사진> 오늘날 한국에 남아 있는 일본 식민지 건축 양식 및 유럽풍 신고전주의/역사주의 건축 양식 건물들의 혼재. 상단: 구 서울역사(1925년, 건축가: 쓰카모토 야스시, 사적 제284호). 중앙 1: 구 조선/한국은행본부청사(현 한국은행 통화박물관) (1912년, 건축가: 다쓰노 긴고, 사적 제280). 중앙 2 좌측: 영국대사관(1892년, 건축가: F. J. 마샬(영국)), 중앙 2 우측: 정명전(1901년, 건축가: 세레딘 사바친(러시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 하단 좌측: 이화여고 심슨 기념관(1915년, 건축가: 미상, 국가등록문화재 제3호). 하단 우측: 구 신아일보 별관(1930년경, 건축가: 미상, 국가등록문화재 제402호)). 출처: 저자((상단 및 중앙: 2020. 1. 21 촬영).

특히, 일제강점기 전후로 한반도의 대도시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절충형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들, 예를 들어 당시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근대 제국주의 국가 출신의 건축가들 혹은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일본인 건축가들이 지었던 식민지 근대 건축 양식 및 유럽식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 건물들 중 몇몇이 오늘날 까지 남아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에 조용히 하지만 의미 있게 자리잡고 있다(사진 2 참조).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소수의 근대 건축 양식의 공공(행정, 외교, 종교 등) 및 민간 건축물들이 일본 식민주의 역사와 복잡하게 얽힌 건축적·문화적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특정 근대 건축문화유산의 존립 자체에 대해 대중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이는 과거의 유산들과 연계된 노스텔지아 혹은 트라우마와 같은 개인·집단의 기억의 영역에 까지 확장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다.

건축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앤서니 킹은 (식민지) 건축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 및 잠재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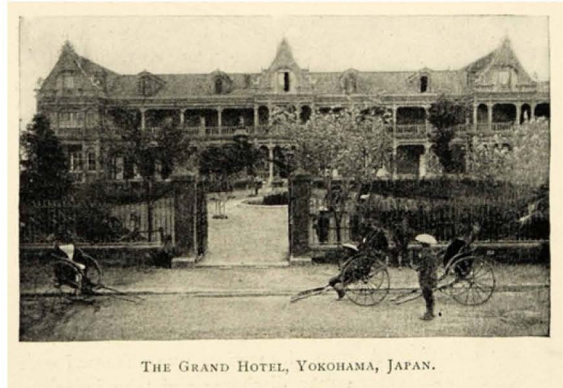
“건축, 그리고 건축 환경 역시 필연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생산물이다. 건물은 사회적 필요에서 만들어졌으며 경제, 사회, 정치, 종교와 문화적인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크기, 모습, 위치와 형태는 물리적인 요소들(기후, 재료)에 지배될 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의 관념, 경제적·사회적 조직의 형태, 재료의 분배와 권위, 그 활동, 믿음과 가치에 의해 지배된다. [더 나아가] 식민주의 건축은 근대 세계체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현대의 전 지구적 도시체계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식민주의의 부분으로 소개된 건축과 도시 형태의 다양한 조합에 포함되고, 상징되고, 통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주의의 건축 환경은 생산물이자 생산자로 기능한다. 그것은 새로운 공간을 정의하고, 노동을 창조하고,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표상하고, 새로운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적 관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¹⁴⁾

근대건축의 원형은 일반적으로 19세기 이후 서구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된 기능에 부합하기 위해 변화된 건축을 지칭한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근대건축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서구의 제국주의적 확장 속에서 이입된 근대건축은 자국 전통 건축의 발전 과정과는 무관한 서구 건축의 완성형이었기 때문이다.¹⁵⁾ 서구 국가들은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자율적으로 근대성을 달성한 반면, 당시 비서구 국가들의 경우 산업적 근대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피식민국으로서 서구의 근대성

14) 김효진(2016)「일본의 초기 근대 건축의 양상과 변모: 식민지 연구를 위한 전제로서의 식민모국 연구」『일본비평』15호, pp.253-254; Denise L. Lawrence and Setha M. Low, “The Built Environment and Spatial For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19, 1990, p.486 참조.

15) 주상훈(2014)『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을 통해 본 1910년대의 관립시설』, p.34 참조.

을 모방을 통해 타율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다시 말해, 자생적·자율적 변화가 아닌 외부로부터 이루어진 타율적 변혁이라는 데 있다(사진 3 참조). 일본의 경우에도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탄생한 건축 문화를 근대건축이라 칭하고 있다.¹⁶⁾ 우리의 근대 또한 산업혁명을 통해 등장한 새로운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만들어진 서구 사회의 근대와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35년에 이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한반도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그곳에는 예외 없이 이른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는 식민지배의 흔적이 남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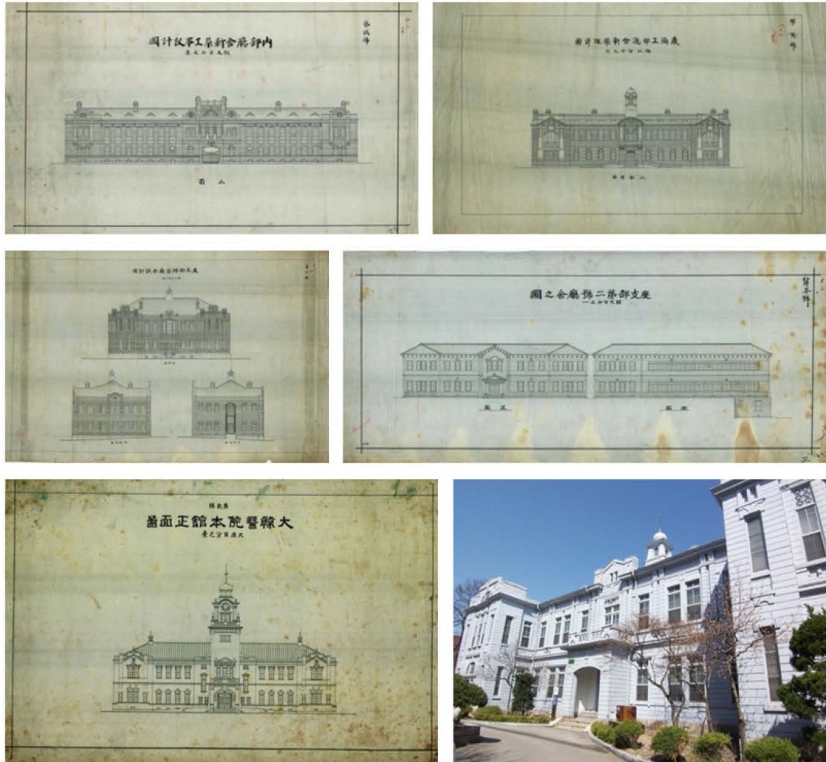
<사진 3> 20세기 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유럽식 식민지 근대 건축. 상단 좌측: 베트남 사이공 시청사(1940년, 건축 양식: 프랑스 식민지(네오르네상스) 건축 양식, 아카이브 번호: GOE1C40). 상단 우측: 사이공 총독 관저(1931년, 건축 양식: 프랑스 식민지 양식, 아카이브 번호: NGM8A8C31). 하단 좌측: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구 네덜란드 식민지 건축 양식 관공서 건물(1945년, 아카이브 번호: XGSC6C45). 하단 우측: 일본 요코하마 그랜드 호텔(1898년, 건축 양식: 네오르네상스, 아카이브 번호: XGL7C98). 출처: © 2020 Period Paper.

16) 주상훈, 전게서, p.34. 서구 및 동아시아(일본, 한반도)의 근대 건축 각각의 기원 관련 논의에 관해서는, 김효진(2016), 전게서, pp.248-327 참조.

2.2 식민지배의 기반 구축을 위한 건축 : 건축적 표준·동질화

일본의 식민지로 완전히 병합되기 이전인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에 따라 조선에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탁지부(度支部) 산하 건축소(建築所)가 설치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통감부의 건축 방식은 건축구법의 관점에 크게 목조건축과 벽돌조 건축 이 두개의 방식으로 나타나며, 주요 관립시설의 경우 건축구법에 관계없이 신고전주의를 근간으로 한 절충주의 건축양식 위주로 지어졌다.¹⁷⁾ 주상훈에 따르면 일제강점 전후로 해서 조선의 대도시들, 특히 식민지 경성에 나타나기 시작한 관립 시설 건축양식과 관련하여 “1918년까지 양식목조구법만이 사용되었고, 1920년을 전후로 점차 벽돌조 구법으로 전환되어 갔으나,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양식목조구법의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1910년대 관립시설 중심의 한국 근대건축은 벽돌조가 아닌 양식목조를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¹⁸⁾ 특히, 탁지부청사, 대한의원본관, 공업전습소 본관, 내부청사 등 목구조건축에도 양식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건축양식에 있어 서양의 근대화 전반에 대한 메이지 정부의 구화주의(歐化主義)를 엿볼 수 있는 일본의 절충적인 의양풍(擬洋風) 건축양식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진 4 참조).¹⁹⁾

- 17) 한국콘텐츠진흥원「서울 근대공간 디지털 콘텐츠: 식민지 지배기구의 건축」,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AGE&search_div_id=CP_AGE004&p_code=cp0434&index_id=cp04340015&content_id=cp043400150001&search_left_menu=1 (2021. 1.2 접속);
 Nate Kornegay, “The Influence of Giyōfū Architecture and 19th Century Japan on Early Modern Korea”,
Colonial Korea, May 12, 2019,
<https://colonialkorea.com/2019/05/12/the-influence-of-giyofu-architecture-and-19th-century-japan-on-early-modern-korea/> (2020. 11. 24 접속) 참조
- 18) 주상훈(2014.12)「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을 통해 본 1910년대의 관립시설」『기록인』제29호, p.39; 주상훈(2012.10)「일제강점기 양식목조구법 사용의 특징과 계획적 변화」『건축역사연구』제21권 제5호, pp.60-61 참조 서양의 신고전주의를 근간으로 한 절충주의 건축양식과 관련하여, 건축가 후지모리 테루노부(藤森昭信)에 따르면 “1910년 이전의 양식목조구법의 건물들이 외관만은 서구의 르네상스식이나 신고전주의 양식 등을 모사했던 것과 달리, 1910년 강점 이후의 관립시설 계획은 메이지 말기 양식목조를 토대로 서구의 건축 양식을 본 따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의양풍(擬洋風) 건축, 즉 ‘비늘판 벽 유사 서양풍(下見板系擬洋風)’ 건축의 전형적인 입면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 1910년 관립시설의 입면 계획에서 확인되는 다른 특징은 중앙부에 대한 강조이다. 이는 관립시설로서의 권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된 장치로, ‘박공[지붕(檼, gabled roof)]’, ‘돔(dome)’, ‘첨탑’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주상훈(2016), 전게서, p.36; 藤森昭信(1993)『日本の近代建築(上)』東京, 岩波新書, p.118 참조; 주상훈(2010)「조선총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계획의 특징」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 19) 한국콘텐츠진흥원「서울 근대공간 디지털 콘텐츠: 식민지 지배기구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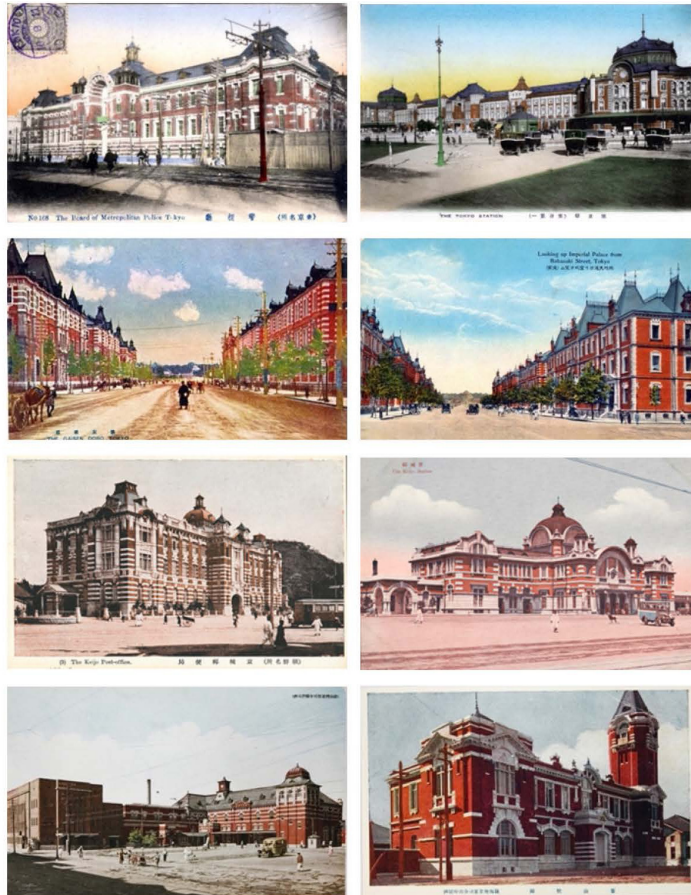


<사진 4> 상단 및 중앙: 탁지부 건축소에서 제작된 대한제국 기관/행정 건축 도면. 상단: (좌측) 내부(内部, 1909-1910년, (우측) 농상공부(農商工部, 1909년경). 중앙: (좌측) 탁지부(度支部, 1909년경), (우측) 탁지부 별관(1910년경). 하단: (좌측) 대한의원본관(1906년경), (우측) 구 공업전습소 본관(현 방승통신대 역사관). 출처: (상단, 중앙, 하단 좌측) 국가기록원, (하단 우측) Kaflan / Wikimedia Commons (2010. 4).

탁지부 건축소는 당시 주 건축 재료였던 목재와 벽돌의 생산 증대를 위해 1907년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를 설치한 벽돌공장을 경성 마포에 건설했으며, 이후 생산된 벽돌은 통감부 시기는 물론 일제강점기 동안 민간 및 관립 건축의 주된 건축재로 자리 잡게 된다.²⁰⁾ 한일병합조약 이후에는 총독부로 식민통치의 주체가 바뀌고 동시에 경성은 식민지 근대도시로의 본격적인 변신을 시작하며, 이 시기 경성에 지어진 조선총독부, 경성역, 경성부청 등과 같은 식민지배의 상징적인 주요 관립 건물/시설들 대부분은 서양의 신고전주의에 기반을 둔 ‘절충형 역사주의 건축양식(eclectic-historicist architecture)’의 석조 또는 유럽풍의 붉은 벽돌의 조적조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다 (사진 5 참조).²¹⁾

20) 한국콘텐츠진흥원「서울 근대공간 디지털 콘텐츠: 식민지 지배기구의 건축」

21) 한국콘텐츠진흥원「서울 근대공간 디지털 콘텐츠: 식민지 지배기구의 건축」



<사진 5> 1900년대 초반 동경 중심가 및 일제 강점기 경성과 부산의 모습. 상단 (좌측) 도쿄 경찰청(1910년경, (우측) 동경역(1920년경, 건축가: 다쓰노 긴고). 중앙 1: 동경역 주변 마루노우치 지역에 조성된 일명 미쓰비시 “런던 타운” (1894-1910년경, 건축가: 조시아 콘더). 중앙 2: (좌측) 경성 우편국(년도: 미상, 건축가: 미상, 이미지 아이디: 10209), (우측) 서울역(년도: 미상, 건축가: 쓰카모토 야스시, 이미지 아이디: 40053). 하단: (좌측) 부산역(1934년경, 건축가: 다쓰노 긴고, 이미지 아이디: AAEZZ00051), (우측) 부산세관본부(1910년경, 건축가: 사쓰키마로 이와타(타지부 건축소(度支部 建築所) 소속), 이미지 아이디: AAEZZ00048). 출처: (상단, 중앙 1) © 2004-2020 Steve Sundberg / Old Tokyo, (중앙 2)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Korean Photo Picture Postcards, (하단)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Locality Archives.

일본 식민지배의 흔적은 개항기의 흔적과 그 모습이 달랐다. 개항기에 형성된 근대문화유산은 대한제국 정부가 서구의 근대국가를 지향하며 궁궐을 지었던 양관이나 산업시설, 서구 열강과의 국교 수립으로 지어진 각국의 공사관과 개항장의 양관,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건축들로 주로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 양식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근대문화유산은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 양식을 닮은 식민지 관공서와 일식주택, 그리고 상업시

설이 주를 이루었다.²²⁾ 윤일주에 따르면 개항 이후 양식 건축은 이식된 경로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외국공원 계통의 건축, 둘째는 선교사를 통한 종교 및 산하 공공시설, 셋째는 외국인의 상사 건물 및 주택, 마지막은 일본인에 의한 관아건물과 공공건물이다.²³⁾ 특히, 일본은 식민지 조선 내에 행정·치안시설들을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이 짓기 위한 목적으로 관립시설건축용 공통건축도면을 적극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시설의 종류만 기록되어 있던가, 도면의 모서리에 공(共) 또는 공통(共通)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던가, 서로 다른 건물이지만 계획 내용이 동일하다 식의 표준화된 공통도면의 적극적인 사용도 당시 관립시설 계획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그림 1 & 사진 6-7 참조). 이는 단시간 동안 전국에 식민통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수의 건물을 지어야 했던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군청, 재판소, 경찰서 등 전국적으로 건설된 모든 관립시설의 계획에서 공통도면이 확인되고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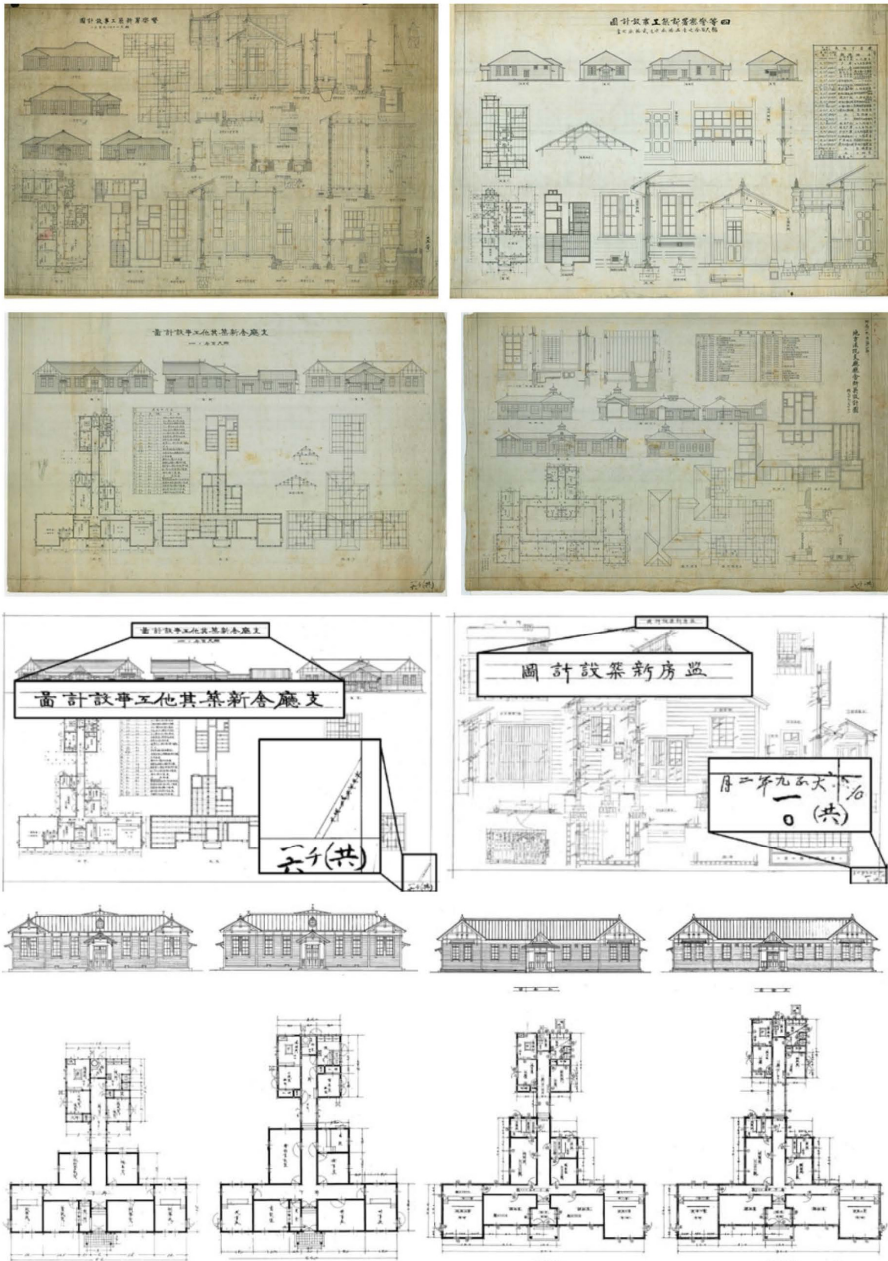


<사진 6> 공통건축도면 사용을 통해 나타난 식민지 조선에서의 규격화된 건축 디자인 경향. 상단 좌측: 대구역(1938년, 아카이브 번호: 74577). 상단 우측: 대전역(1938년, 아카이브 번호: 74548). 하단 좌측: 평양상공회의소(1938년, 아카이브 번호: 74489). 하단 우측: 신의주역(1915년, 아카이브 번호: 79084). 출처: (상단, 중앙 및 하단 좌측) 서울역사박물관.

22) 안창모(2011)「근대건축과 우리의 얼굴」, 오창섭 외 5인, 『한국의 근대건축』파주: 북노마드, p.85

23) 주상훈(2014), 전게서, p.34; 윤일주(1965)『韓國·洋式建築 80年史』야정문화사 참조

24) 주상훈(2014), 전게서, p.37



<그림 1> 탁지부 건축소(度支部 建築所)에서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공통건축도면 상단 치안 시설 관련 공통건축도면((좌측) 1920년경, 아카이브 번호: 47324, (우측) 1915년, 아카이브 번호: 47004). 중앙: 지방법원 시설 관련 공통건축도면((좌측) 1916년, 아카이브 번호: 26601, (우측) 1910-1920년경, 아카이브 번호: 26599). 하단: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립 시설 계획을 위한 표준화된 공통건축도면 사용의 예. 출처: (상단 및 중앙) 국가기록원, (하단) 주상훈, ‘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을 통해 본 1910년대의 관립시설’, 37~38쪽 참조



<사진 7> 상단 좌측: 부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상단 우측: 부산 부경고등학교 본관. 하단 좌측: 일본 국회의사당 본관. 하단 우측: 일본 교토 대학교 본관 100주년 시계탑 기념관. 출처: (상단 좌측) 저자(2020. 9.29촬영), (상단 우측) 저자(2020. 9.3 촬영), (하단 좌측) Wiii / Wikimedia Commons (2009), (하단 우측) 작자 미상/ Wikimedia Commons (1984. 1. 20).

3. 기억의 사회적 맥락 : 근대건축문화유산과 집단적 기억/정체성 형성

할프박스와 아스만의 ‘사회·문화적 기억’ 대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세대에 걸쳐 우리의 시대상 혹은 개인적·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구체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건축문화유산의 ‘일상적 존재 / 보존’ 혹은 ‘인위적 부재 / 철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남아 있거나 이미 사라져 버린 식민지 근대건축양식의 건물들이 왜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는지 아님 그렇지 못했는지를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었던 기억이라는 주제가 사회적 맥락을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의

산물 혹은 수없이 다양한 개인의 기억들이 복잡하게 얽힌 집단이 다양한 맥락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유산으로서 인식됨에 따라 기억에 대한 학술연구는 기존의 의학에 기반을 둔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의 영역을 넘어서 역사학, 문화연구 등 다수의 인문사회연구분야로 확장되었다. 신동희와 김유승에 따르면, ‘기억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할프박스(1992)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이후, ‘개인적 기억’, ‘개별적 기억’, ‘사적 기억’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기억’, ‘집단적 기억’, ‘공적 기억’이라는 개념²⁵⁾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할프박스는 “집단 기억(collective / social memory)”이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문화적 기억의 연구가 기존의 철학적, 심리학적, 문예학적 접근과 달리 기억을 개인심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할프박스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고독한 개인에게는 기억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억은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억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의사소통의 내용이 되고 집단적 기억의 테두리 안에 자리잡을 수 있는 것만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는 기억, 즉 ‘사회적 기억’ 혹은 ‘집단적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모든 기억이 집단 기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아스만(1995)은 ‘집단의 개개인들에게 널리 공유되며 개개인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집단을 규정하는데 도움을 줄 때만 비로소 집단 기억’이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⁶⁾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만들어 지는 집단 기억 형성의 구조주의적

25) ‘기억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기억은 특정한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에서 ‘공유’되면서 집단의 기억을 형성한다. 여기서 ‘공유’되는 정서와 기억은 다시금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대변하게 된다. 특히, 기억연구가 하나의 중요한 학문적 영역을 차지하게 된 것은 기억이라는 형태 정보가 지니는 포괄성으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단면을 어떠한 매개체보다 더 광범위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역사학, 문화,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기억은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되었다’. 신동희, 김유승(2016)「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16권 제1호, p.42;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edited,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26) 신동희, 김유승(2016), 전거서, p.48; Jan Assmann,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translated by John Czaplicka), *New German Critique* no. 65 (Spring-Summer), 1995, pp.125-133 참조. 아스만의 기념비/기념조형물을 매개로 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집단 기억, 일명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형성과 관련하여 신동희와 김유승은 바틀렛의 ‘스키마’와 연관시켜 좀 더 확장된 집단 기억 형성의 양상을 설명한다. ‘바틀렛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 기억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체제는 스키마, 정보의 범주 체계라고도 불리는 사회의 관념체계라고 논하였다. 스키마는 과거 경험의 적극적인 조직화이자, 인간의 지식 및 관념의 반응체계다.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은 자신의 스키마에 새 정보를 대응해서 개념을 형성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함께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책을 읽고, 수많은 동일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억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유사한 스키마, 즉 관념체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관념체계는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과 관점을 형성한다. 사회적인 관념체계는 사회적 기억을 결정하고, 사회적 기억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논리다’. 신동희, 김유승(2016), 전거서, pp.48-49; Frederic C. Bartlett, *Remembering: A Study in*

관점에 대해 신동희와 김유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적 맥락에서 기억을 연구한 다수의 학자들은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환경이나 공동체 내부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기억은 단순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관계, 정치 체계, 사회적 권력관계 내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담론, 이슈, 기대 등은 개인이 한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 요인은 개인의 기억뿐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에 작용하게 되며, 이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작용은 기억의 사회화의 공적 영역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공적 기억 또는 집단 기억이라 불리는 사회적 기억은 정치,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시대적 규범과 체제와의 상호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규정되고 생성되는 기억을 의미한다.’²⁷⁾

그럼 이렇게 다소 추상화·상상화 된 집단이 공유하게 되는 집단의 기억들을 더욱더 구체화시켜주는 기념 조형물 혹은 건축물과 같은 기억장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 관련 근대건축문화유산 철거 혹은 보존 결정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최근 사적 280호인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본관에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이 새겨진 머릿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서울 시내 가장 중심가에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 및 비판이 서울시민 나아가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생기는 듯하다.²⁸⁾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근대건축문화유산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철거 보단 과거 일제 침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슬픈 근대 역사를 우리의 의식 속에 계속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처럼 과거의 슬픈 역사를 일종의 트라우마로 잊혀져야 하는 것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슬픔 /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되풀이 되어선 안될 일종의 역사적인 경고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 곳곳에는 과거 국가사회주의로 인한 과오들을 반성하는 의미로 다양한 기념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지만 기존의 어떤 역사적·국가적 긍정적인 성과들을 기념하는 조형물인 ‘덴크말(Denkmal)’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지른 악행을 상기시키거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경고할 목적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2) 참조.

27) 신동희, 김유승(2016), 전계서, p.43

28) 신진호(2020.10.21.) 「한국은행 머릿돌, 이토 히로부미 친필 맞다...일제 경제침탈의 흔적」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1500083&wlog_tag3=daum (2020. 10. 21 접속).

으로 만들어진 ‘메멘토 모리’의 기능을 하는 기념조형물인 ‘만말(Mahmmal)’이 있다.²⁹⁾ 우리의 현재가 축적된 과거의 결과이며, 현재가 곧 우리의 미래를 규정한다 하는 다층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시간성 및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메멘토 모리’로서의 기억의 기능은 영국의 역사학자 E. H. CARR가 정의하는 역사와 일맥상통하다. 즉,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행해지는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과거와 현재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배워가고, 더욱더 깊이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역사의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⁰⁾ 다시 말해, 과거 없는 현재와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5년부터 1996년 까지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1년여에 걸쳐 실행된 경복궁 내 정 중앙에 위치했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해방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의 철거와 관련해서도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관립시설들 뿐만 아닌 다양한 민간 근대 건축물들을 철거하느냐 아님 보존 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사진 8 참조). 이에 대해, 메이지 유신 이후 유럽의 정치사회 시스템 및 건축양식, 특히 독일의 건축양식에 영향을 받은 일본과 일본의 동아시아 식민지들에서 나타난 식민지 근대성에 관한 연구에서 정진성은 몇몇 일제 식민지 근대건축문화유산들이 아직까지 보존/유지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즉, 구 조선총독부와 같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 있는 일본 식민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건축 자체가 풍기는 뭔가 모를 이국적인 외관 및 내부, 즉 일본의 전통적인 지방 가옥들은 건물 내/외부에서 풍기는 아주 일본적인 요소들 때문에 해방 이후 그러한 과거 일제 식민지의 모습들을 지우기 위해 철거 되거나 도시 폐허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진 반면, 완전 서구/유럽풍이거나 아님 서구/유럽풍과 일본풍이 결합된 건축 양식적 정체성이 다소 모호한 건축들은 그러한 서구식 건축양식에서 오는 뭔가 모를 이질적이고 특별함에 아직까지 철거 되지 않고 복원/개보수를 통해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³¹⁾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시절 경남도청으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및 부산 고등법원으로 사용되었다가 2001년도 복원공사를 통해 다시 태어난, 현 일본 국회 본관 건물의 초기 유럽 모더니즘과 이집트 피라미드

29) 백중옥(2018)『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도시의 풍경에 스며든 10가지 기념조형물』반비

30) E. H. 카, 김택현 옮김(2015)『역사란 무엇인가』서울: 까치글방

31) Jin-Sung Chun “Specters of Schinkel in East Asia: Berlin, Tokyo, and Seoul from a Viewpoint of Modernity/Coloniality”, Joanne Miyang Cho and Lee M. Roberts eds., *Transnational Encounters between Germany and Korea: Affinity in Culture and Politics Since the 1880s*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8) p.123 참조.

양식이 결합된 정면부분과도 다소 유사한 듯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아님 현 교토 대학의



<사진 8> 상단 좌측: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청사(1938년, 건축가: 미상, 아카이브 번호: 74464). 상단 우측: 2009년 복원공사 완료 후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 박물관으로 사용(국가등록문화재 제41호). 중앙: 조선총독부 신청사(1938년, 건축가: 게오르크 드 라란데(설계) + 노무라 이치로와 쿠니에다 히로시(완공), 아카이브 번호: 74416. 하단 좌측: 1958년 경복궁 내 중앙에 위치한 조선총독부 신청사 항공 촬영 이미지. 하단 우측: 한국정부의 식민지 과거 청산 운동의 일환으로 1995년 8월 15일부터 1996년 말까지 거진 1년에 걸쳐 철거된 조선총독부 건물의 잔해 모습. 출처: (상부 좌측 및 중앙) 서울역사박물관, (상부 우측) 저자(2020. 6. 20 촬영), (하단) 국가기록원.

본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부경고등학교 본관 건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아직까지도 보존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진 7 참조). 이런 의미에서 본고의 서두에 언급했던

근대성과 전통 간의 대립 혹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영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하비와 이탈리아 디자이너 브루노 무나리의 근대(성)에 내제된 모순에 관한 생각들 또한 일본 식민지 관련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철거 혹은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다각적인 생각의 여지를 제공해 준다.

4. 결론

본고는 현대 도시경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대건축물과 같은 근대문화공간·유산을 통해 오늘날 한국 대중들이 개인적·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연상시키는 수단이자 대상 그 자체로서 근대문화유산들, 특히 과거 일제 식민 통치와 연계된 역사적 정체성으로 인해 다각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근대건축문화유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통해 과거 및 이후 세대와 어떠한 의미 있는 문화적 접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메이지 시대 일본과 개화기 및 식민지 조선의 근대 공간 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양식 근대건축양식과 이후 파생된 다양한 건축적 변화·혼종들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전통적인 공간 및 일상 전반에 나타난 변화들을 당시 근대 건축 기술, 특히 표준화된 건축 디자인 사용에 내제된 근대적 표준성·획일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축적 획일성을 바탕으로 일본이 그들의 식민지 근대도시들에 실현코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식민지 도시 전경 전반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바로 탈식민주의 이론인 ‘심상지리(心想地理, imagined geographies)’를 바탕으로 상상된 식민지 공동체였을 것이다. 상상의 지리 공간, 즉 주체가 인식하고 상상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말하는 ‘심상지리’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에 기초한 관념의 산물이며, 이 개념의 주체는 타자를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대상화(objectification)’시켜 ‘자기화(internalization)’하려는 경향이 있다.³²⁾ 이는 19세기 서구 제국주의가 당시의 세계를 이해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개념적 틀로 발전시켜 사용되었으며 탈식민주의 학자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상상과 허상을 동원하여 실제와 차이 나거나 과장되게 묘사·인식·상대하는 방식으로 동양/식민지의 피지배자를 타자화 시켜 서양/식민지배자인 자신들의 존재감을 재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심상지리적 인식방법이다.³³⁾

32) 김승환(2018.02.14.)「심상지리」시방아트, <http://seebangart.com/archives/3865> (2021. 2. 3. 접속).

33) 김승환(2018.02.14.)「심상지리」.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양의 관점에서 유럽이 아닌 세계인 오리엔트를 ‘유럽이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데에 도움이

이런 맥락에서 제국의 수도였던 도쿄, 다시 말해 19세기 독일 제국의 수도였던 베를린의 신고전주의·권위주의적 건축 및 도시풍경 전반의 이미지가 투영된 ‘상상의 베를린(Imagined Berlin)’³⁴⁾으로서의 메이지 도쿄는 도시풍경 전반을 경성과 타이페이와 같은 식민지 도시들에 그대로 투영시킴으로써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담론에 영향을 받은 당시 근대일본인들의 ‘탈아(脫亞)’ 심상지리적 세계관을 더욱더 공고히 하였다.³⁵⁾ 이를 위해 표준화된 근대 건축 디자인을 관립시설건설 중심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상의 식민지 공동체라는 심상지리적 의식을 식민지의 일상 곳곳에 심어 두었으며 현재까지 근대건축유산이라는 흔적으로 남아 우리의 탈식민지적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싶다. 저자 또한 예전 일본 교토에서 당파풍(唐破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풍국신사(豊國神社)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다소 초라한 모습의 조선인 귀무덤과 신사 바로 좌측 편에 위치한 프랑스 궁정건축양식풍의 교토국립박물관을 번갈아 바라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 400여년이나 지났음에도 침략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 동시에 건축가 가타야마 도쿠마의 서구적인 건축양식에서 풍기는 이국적인 느낌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를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자는 19세기 서구/유럽의 자발적인 근대성이 아닌 서구/유럽의 문화가 곧 근대라는 세기말 그리고 세기 전환기 동(북)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에 내재된 사대주의적·타율적인 식민지 근대성이 세대를 거쳐 현재를 살아가는 저자의 무의식에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 】

김승환(2018.02.14.)「심상지리」시방아트, <http://seebangart.com/archives/3865> (2021. 2. 3. 접속).

김효진(2016)「일본의 초기 근대 건축의 양상과 변모: 식민지 연구를 위한 전제로서의 식민모국 연구」『일본비평』15호, pp.248-281

데이비드 하비, 김병화 옮김(2005)『모더니티의 수도』파라, 생각의 나무

박천홍(2003)『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 철도로 돌아본 근대의 풍경』서울: 산처럼

백종옥(2018)『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도시의 풍경에 스며든 10가지 기념조형물』반비

브루노 무나리, 양영완 옮김(201)『예술가와 디자이너』디자인 하우스

된’, 즉 ‘유럽인들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 부터 반복되어 나타나는 타자의 이미지(images of the Other)’였다고 말한다. 윤상인(2011)「지리담론을 통해 본 근대일본인의 심상지리와 아시아인식 - 후쿠자와 유키치를 중심으로」『아시아문화연구』제23집, p.150;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8) 참조.

34) Jin-Sung Chun “Specters of Schinkel in East Asia: Berlin, Tokyo, and Seoul from a Viewpoint of Modernity/Coloniality”, pp.108-116 참조.

35) 윤상인(2011), 전제서, pp.135-154 참조.

- 소수원·심은주(2006)「퍼어스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건축 공간의 아이코닉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한국 실내디자인학회』제8권 2호, pp.129-134
- 신동희·김유승(2016)「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16권 제1호, pp.41-59
- 신진호(2020.10.21.)「한국은행 머릿돌, 이토 히로부미 친필 맞다...일제 경제침탈의 흔적」『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1500083&wlog_tag3=daum (2020. 10. 21 접속).
- 양지윤·김주연(2019)『아이코닉 건축』북저널리즘
- 안창모(2011)「근대건축과 우리의 얼굴」, 오창섭 외 5인『한국의 근대건축』파주: 북노마드, pp.80-87
- 오연옥(2015)「근대소설에서 나타난 과학과 교통기술의 매체성 연구」『한국문학논총』제71집, pp.407-445
- 오창섭(2011)「근대의 전력, 기차」, 오창섭 외 5인『한국의 근대건축』파주: 북노마드, pp.8-21
- 윤상인(2011)「지리담론을 통해 본 근대일본인의 심상지리와 아시아인식 - 후쿠자와 유키치를 중심으로」『아시아문화연구』제23집, pp.135-154
- 윤일주(1965)『韓國·洋式建築 80年史』야정문화사
- 윤미애(2002)「매체와 문화적 기억」『독일어문화권연구』Vol.11, pp.38-62
- E. H. 카, 김택현 옮김(2015)『역사란 무엇인가』서울: 까치글방
- 조희영·김정근(2007)「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한 현대 건축물의 아이콘화 여건 분석」『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27권 1호, pp.343-346
- 주상훈(2014)「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을 통해 본 1910년대의 관립시설」『기록인』제29호, pp.34-43
- _____(2012)「일제강점기 양식목조구법 사용의 특징과 계획적 변화」『건축역사연구』제21권 제5호, pp.57-68
- _____(2010)「조선총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계획의 특징」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범(2018)『최범의 서양 디자인사』파주: 안그라픽스
- 한국콘텐츠진흥원,「서울 근대공간 디지털 콘텐츠: 식민지 지배기구의 건축」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AGE&search_div_id=CP_AGE004&cp_code=cp0434&index_id=cp04340015&content_id=cp043400150001&search_left_menu=1 (2021. 1.2 접속).
- David Harvey, *Paris: Capital of Modern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 Denise L. Lawrence and Setha M. Low, "The Built Environment and Spatial For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19, 1990, 450-505.
-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8).
- Eric Grundhauser, "Did a Silent Film About a Train Really Cause Audiences to Stampede?: A closer look at an enduring tale of movie-induced panic," *Atlas Obscura*, November 3, 2016, <https://www.atlasobscura.com/articles/did-a-silent-film-about-a-train-really-cause-audiences-to-stampede> (2020. 9. 27 접속).
- Frederic C. Bartlett,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2).
- Jan Assmann,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translated by John Czaplicka), *New German Critique* no. 65 (Spring-Summer), 1995, 125-133.
- Jin-Sung Chun "Specters of Schinkel in East Asia: Berlin, Tokyo, and Seoul from a Viewpoint of Modernity/Coloniality", Joanne
- Miyang Cho and Lee M. Roberts eds., *Transnational Encounters between Germany and Korea: Affinity in Culture and Politics Since the 1880s*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8), 99-129.
- Ludwig Mies van der Rohe, "Friedrichstrasse Skyscraper Project, Berlin-Mitte Germany (Exterior perspective from the north)", *MoMA*, 2020,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787> (2020. 9. 20 접속).

- Martin Loiperdinger, "Lumiere's Arrival of the Train: Cinema's Founding Myth," *The Moving Image* 4(1), 2004, 89~118.
-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edited,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Nate Kornegay, "The Influence of Giyōfū Architecture and 19th Century Japan on Early Modern Korea", *Colonial Korea*, May 12, 2019,
<https://colonialkorea.com/2019/05/12/the-influence-of-giyofu-architecture-and-19th-century-japan-on-early-modern-korea/> (2020. 11. 24 접속).
- Tristan R. Grunow, "Ginza Bricktown and the Myth of Meiji Modernization", Tristan R. Grunow and Naoko Kato eds., *Digital Meijis: Revisualizing Japanese History at 150*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ibrary, 2019),
<https://pressbooks.bccampus.ca/meijiat150/chapter/ginza-bricktown-and-the-myth-of-meiji-modernization/> (2020. 10. 3 접속).
- William H. Coaldrake, "Building the Meiji State: The Western Architectural Hierarchy," in *Architecture and Authority in Jap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209~250.
- 藤森照信, "日本の近代建築(上)", 東京, 岩波新書, 1993.

<Websites>

- 문화재청: http://english.cha.go.kr/chaen/search/selectGeneralSearch.do?mn=EN_02_02.
-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Korean Photo Picture Postcards:
<http://db.nichibun.ac.jp/pc1/en/category/chousen.html>.
-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viewMain.do>
- Old Tokyo: www.oldtokyo.com.
- Period Paper (Architecture): <https://www.periodpaper.com/collections/architecture>.
-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Locality Archives: <http://bpa.localityarchives.org/collection-tree>.
-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archive/archiveList.do?type=D&arvcGroupNo=2844>.

논문투고일	: 2021년 01월 06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21년 02월 08일
2차 수정일	: 2021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2월 17일

〈要旨〉

건축을 매개로 한 상상의 문화적 기억공간

- 탈식민시대 대한민국의 일제 식민지 근대 건축문화 유산 -

이홍렬

본고는 현대 도시경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대건축물과 같은 근대문화공간/유산을 통해 오늘날 한국 대중들이 개인적·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연상시키는 수단이자 대상 그 자체로서 근대문화유산들, 특히 과거 일제 식민 통치와 연계된 역사적 정체성으로 인해 다각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근대건축문화유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통해 과거 및 이후 세대와의 의미 있는 문화적 접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메이지 시대 일본과 개화기 및 식민지 조선의 근대 공간 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양식 근대건축양식과 이후 파생된 다양한 건축적 변화·혼종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전통적인 공간 및 일상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당시 근대 건축 기술에 내재된 근대적 표준성·획일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rchitecture and Cultural Memory Spaces Imagined

- Modern Built Heritages in Postcolonial Korea -

Lee, Hong-Real

This paper seeks to explore how Koreans today perceive and read their modern cultural heritage which now came to fall into its de-facto *raison d'être* being contested for its historical links to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It looks particularly into this aspe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ocultural ways in which collective memories are formed or constructed vis-à-vis the mnemonic dynamics of cultural policy. It juxtaposes today's ordinary Koreans having more diversified attitudes and views towards it with their government's hitherto controversial decisions made on the preservation or demolition of some of ex-colonial public buildings in postcolonial Korean cities, designed by western-educated or influenced Japanese architects. Specifically, it concerns how imaginatively Japan's colonial primate cities, i.e., Seoul and Busan, were refashioned by Meiji Japan (1868-1912)-hired European architects and their Japanese collaborator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his study therefore strives to deliberate over how *negative* or *historically stigmatised* architectural heritage still disputed in postcolonial nations the world over are to be managed and preserved. And I argue that it is the extensive use of standard design enabled via common architectural plans of Japanese architects or architectural engineers-designed official buildings in colonial Korea that fed into the architecturally-imagined *pseudo-Westernisation/Europeanisation* of its overall urban and social-scapes.